

---

# Special Economic Zones : Accelerating Financial Services

## - 경제 특구 : 금융 서비스의 가속화 -

---

(2025.04.11., 박성현 인턴)

### □ 목차

1. 출처	1
2. 집필자 및 핵심내용	1
3. 상세내용	2
FINTECH POWERHOUSES(핀테크 강국)	2
CLUSTERING DEVELOPMENT(클러스터 기반 개발)	2
United Arab Emirates(아랍에미리트)	3
SAUDI ARABIA(사우디아라비아)	5
RWANDA(르완다)	6
Conclusion(결론)	6

# 1 출처

□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2025.04.08.)

○ 기관 소개

- 국제금융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IIF)는 전 세계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협회로, 60개국 이상에서 약 400개 기관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83년 설립된 IIF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금융 시장의 발전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세계 경제 및 금융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IIF의 회원사는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전문 서비스 기업, 거래소, 국부펀드, 헤지펀드, 중앙은행 및 개발은행 등을 포함합니다.

○ 기관 역할

구분	세부 설명
정책 옹호 (advocacy)	국제 자본 및 유동성 기준, 파생상품 규칙, 회계 기준, 새도우 बैं킹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고위급 협의 진행
연구 (Research)	신흥국 경제 전망, 자본 흐름, 금융시장 리스크 등 심층 연구 제공 및 회원사 대상 맞춤형 브리핑 지원
행사 및 네트워크 (Convening Power)	회원 회의 및 포럼을 통해 업계 리더 · 정책결정자 간 교류 촉진, 'IIF 리더십 및 공공서비스상' 수여

# 2 집필자 및 핵심내용

□ 집필자

- Jessica Renier, 디지털 금융 전무 이사, Hannah Anderson, 디지털 금융 정책 고문
- Mostafa Tawfik, 디지털 금융 인턴, Yiyang Lian, 디지털 금융 인턴

## □ 핵심내용

- 여러 국가들은 금융 서비스를 위한 특별경제구역(SEZ)을 활용하여 핀테크 자원과 인재를 집약하고 자국의 금융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 아랍에미리트(UAE)의 금융센터들은 단순 명료한 규제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결합하여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금융 특구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을 가속화하려 하며, 산업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인 탐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편 르완다는 동아프리카의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SEZ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3 상세내용

### □ FINTECH POWERHOUSES(핀테크 강국)

리더십을 향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별경제구역(SEZ)은 오랜 역사를 가진 경제 개발 정책 수단으로, 오늘날에는 국제 금융 서비스 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ers, IFSCs)로 형태를 전환하여 그 전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특구는 점점 핀테크 중심의 초점을 가지게 되었고, 기술 채택을 촉진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규제 기관의 성숙도와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특구를 통해 인공지능(AI) 개발을 촉진한 대표적 사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본 보고서의 지난 호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다양한 SEZ들이 추진하는 우선순위는 대개 자국의 지역 또는 국제 금융 리더십 확보라는 보다 넓은 국가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증가된 재정 지출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 □ CLUSTERING DEVELOPMENT(클러스터 기반 개발)

SEZ는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과 투자 촉진 정책을 제공하는 지정된 지리적 구역입니다. IFSC는 이러한 특징에 더해, 기술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전용 자원, 글로벌 기업과 지역 스타트업 모두를 위한 인센티브, 그리고 전문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완화 정책 등을 결합합니다.

IFSC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산업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규제 태도입니다. 이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형 체계를 포함하며, 새로운 정책을 빠르게 조정하거나 도입할 수 있는 민첩한 정책 입안자들이 존재하는 통제된 환경 안에서 운영됩니다.

SEZ는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는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성공적인 기업 발굴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비록 이들 국가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걸프 지역 전역에는 다수의 강력한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들이 존재합니다. 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DIFC)와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과 같은 잘 알려진 금융특구들은 비즈니스에 매력적인 지역으로 자리잡았으며, 핀테크 분야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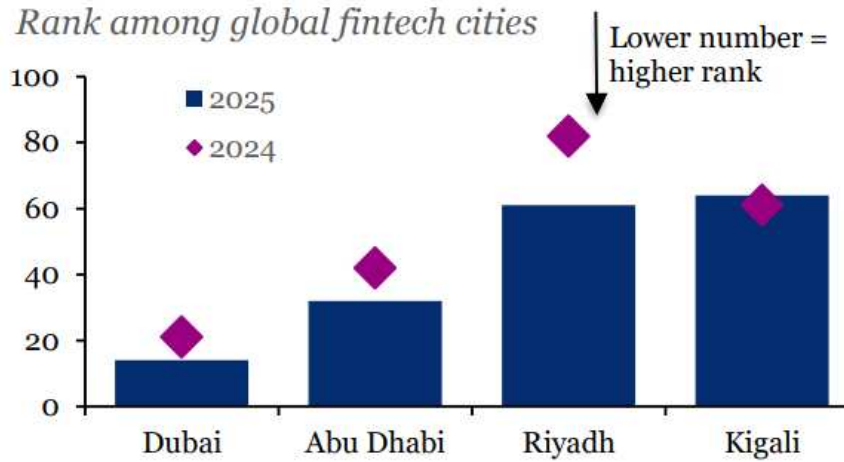
아직 개발 중인 금융특구들로는 사우디아라비아(KSA)의 킹 압둘라 금융지구(KAFD),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 그리고 르완다의 키갈리 국제 금융센터(KIFC)가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 혁신가들을 집결시켜 지역 금융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2025년판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는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IFSC는 향후 3년 내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15개 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센터는 금융 중심지로서의 순위에서도 눈에 띄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바이는 명실상부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 United Arab Emirates(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UAE 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입니다. 이 센터는 세계 금융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점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DIFC의 독립 규제 기관인 두바이 금융서비스청(DFSA)은 이를 위해 2025년도 사업계획에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 접근 방식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하며, 이러한 기준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 기술을 수용하고 특히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신흥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 체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융 및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Ranking global fintech centers suggest IFSCs can boost industry presence



Source: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IIF.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유연한 규제 태도는 DIFC가 자체적인 영미법(Common Law) 기반의 법률 체계 아래에서 운영된다는 점과 맞물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DIFC는 2024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자산법을 제정하였으며, 암호화폐 기반 금융 서비스의 핵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 역시 2015년 출범 이후 빠르게 금융 서비스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습니다. ADGM은 영국식 영미법을 직접 적용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 면허 보조금, 주거비, 건강 보험,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직원 수가 25명 이하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ADGM은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자산—ADGM에서는 이를 ‘가상 자산(virtual assets)’이라 지칭합니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서비스규제청(FSRA)이 2024년 말에 발표한 가상 자산 관련 정책에 대한 공개협의입니다.

해당 협의안에는 ADGM 내에서 거래 가능한 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자(VASP)의 사업 모델과 규제 기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며, 자본 요건과 수수료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허용 여부에 대한 공개 질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안의 최종 규칙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안과 새로운 지침은 VASP에게 더 큰 운영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FSRA에게는 공공의 위험이 감지될 경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ADGM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가상 자산 규제의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업계가 주목해야 할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조기 규제 명확성과 기업 지원 정책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UAE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2031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이며, 2031년까지 인공지능이 비석유 GDP의 약 20%를 차지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UAE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전담 장관을 내각에 임명한 국가이며, 해당 장관은 ADGM의 디지털 샌드박스 및 DIFC의 혁신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관련 이니셔티브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DIFC의 혁신 라이선스는 2~5년간 유효한 운영 면허로, DIFC 이노베이션 허브에 입주한 기업에게 사무공간과 비자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수혜 기업의 다수는 인공지능 기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두바이 AI 캠퍼스에 입주한 기업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인재를 집약하고, 금융 산업에의 응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두바이의 범용 청사진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두바이 AI 주간 행사에서는 이노베이션 허브가 6개월 이내에 100개 기업을 유치 하겠다는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새로운 정책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 □ SAUDI ARABIA(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에서 핀테크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비전 2030의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러 특별경제구역(SEZ) 중에서도, 2007년에 설립된 킹 압둘라 금융지구(KAFD, 리야드 소재)와 2005년 발표된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KAFD는 두 도시형 특구 중에서도 스마트시티 구현과 AI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 지역을 첨단 기술의 실험 무대로 전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KAEC는 사우디의 AI 리더 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연산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23년에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허브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인공지능이 2030년까지 GDP의 12%를 차지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데이터 및 인공지능청(SDAIA)은 최근 외국 기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특구 내에 우수센터(Centers of Excellence)를 설립하는 등, AI 개발을 위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프로젝트 트랜센던스(Project Transcendence)라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는 사우디 전역의 연구자들을 연결하고 기존 산업에 AI를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금융특구(IFSC) 내에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아랍어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개선하여, 이를 중동 지역에서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핀테크 리더십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 □ RWANDA(르완다)

르완다는 2020년에 설립된 키갈리 국제금융센터(KIFC)를 통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신생 IFSC 중 하나입니다. 르완다 정부는 국가 핀테크 전략(2024~2029년)을 통해 높은 성장률과 활발한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활용하여, 핀테크 투자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KIFC는 금융 인프라를 중심으로 간소한 기업 등록 정책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개발을 지원해 왔습니다.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은 KIFC를 동아프리카 내에서 확장 중인 AI 생태계의 실험지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KIFC는 ADGM, 세계국제금융센터연맹(WAIFC)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핀테크 성장 전략을 통해 다자간 공공 부문에서도 우선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 CONCLUSION(결론)

금융 서비스 중심의 특별경제구역은 특정 국가의 상업적 영향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오늘날에는 더욱 빈번하게 논의되는 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례들 외에도, 카타르 금융센터나 인도의 구자라트 국제금융테크시티(GIFT 시티) 등은 단일 국가의 규제 체계나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국제 금융 서비스를 유치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경제구역이 자국의 경제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여전히 혼재되어 있으나, 금융 서비스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강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르완다와 같이 글로벌 인공지능 논의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는 금융특구(IFSC)

내 자원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에서 자주 제기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이미 중국 등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있어, 다른 국가들 또한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